



Artist News Clippings

SOLUNA
FINE ART



Uzine Park | b. 1977 in Seoul, South Korea

SOLUNA
FINE ART



SUMMARY

English

- **Gallery Vriend Van Bavink** (19 Jan, 2018)
- **Galleries Gal** (13 Sep, 2020)

Chinese

- **Ztylez** (30 Nov, 2022)

Korean

- **Blog Naver** (1 Feb, 2012)
- **Blog Naver** (3 April, 2012)
- **Weekly HK** (25 Nov, 2022)

**Please note: next pages ordered by date of release (from En to Kr).*



Gallery Vriend Van Bavink

Posted Jan 19, 2018

<https://www.vanbavinkgallery.com/exhibitions/this-must-be-the-pacific-place>

GALLERY VRIEND VAN BAVINK

EXHIBITIONS ARTISTS CONTACT SUBSCRIBE  

[← BACK TO ALL EVENTS](#)

THIS MUST BE THE PACIFIC PLACE

Friday, January 19, 2018, 6:00 PM –
Saturday, February 24, 2018, 7:00 PM

Uzine Park , Jan Yongdeok Lim , Meiya Lin, Maya Nukumizu, Pedro Bakker

a group show with Asian art

19 jan – 17 feb

Opening 19 january 17:00

Vriend van Bavink : Uzine Park (KOR), Jan Yongdeok Lim (KOR), Meiya Lin (CHN)
Ten Haaf Projects: Maya Nukumizu (JAP)
Galerie Witteveen : Pedro Bakker (NL/CHN)



SEP 13

Group exhibition "Obangsaek: Vermilion" at Soluna Fine Art

Next colour in Obangsaek Series, the series of five exhibition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Five-Orientation-Colour system. Vermilion/red represents the passionate energy of life (in addition to being associated with south, fire, and Yang; quite logical if you ask me).

Exhibited artists: Jeong Myoung Jo, Park Jisook, Uzine Park, Park Yoon-Kyung, and Song Kwangik.

Exhibition period: 21.08 — 19.09.20

Gallery address: G/F, 52 Sai Street, Sheung Wan

Latest Post





EXHIBITION | November 3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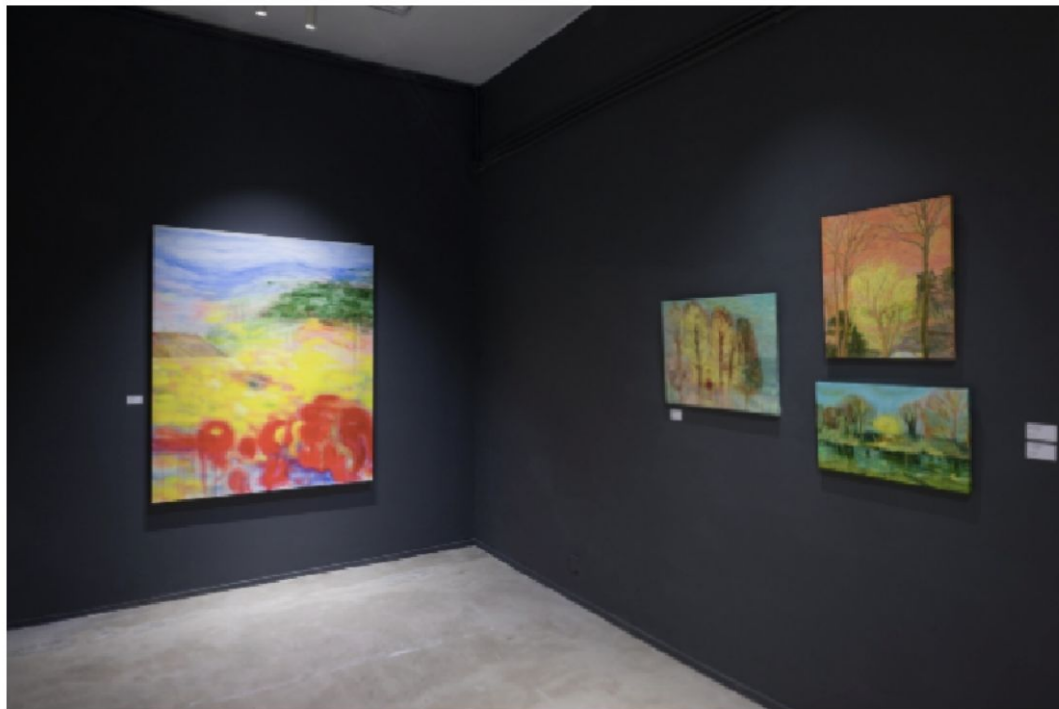
Soluna Fine Art 年末呈獻藝術家群展，四種風格闡述理解現實的全新角度

by Ruby Yiu



Soluna Fine Art 年末攜手四位來自香港及荷蘭的藝術家舉辦群展「Gravity 重力」，包括吳芮恩、簡喬倩、朴有振及張廷瑋。藝術家們以介乎於抽象和具象之間的筆法，繪畫出風格各異的植物、靜物和風景主題的混合媒體作品，引領觀眾進入虛實交織之虛無空間。

在大自然法則間，重力的出現展示了一種基礎的生命力。這個展覽表現了關於人類的直覺經驗，我們通過各自對色彩、筆觸的解讀，慢慢隨著作品尋找理解現實的不同角度。



朴有振（韓國）風景畫中的色彩運用，突出季節性的氛圍和天氣狀況。雖然大部分的天空和樹木顯得隱暗，甚至是狂風暴雨般，但朴氏微妙地呈現有蓋的房屋，為觀眾增添一份安全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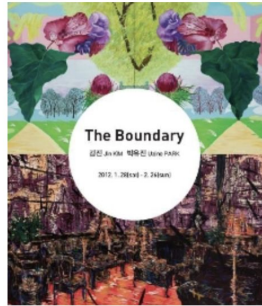
News of Art

[미술전시] 미술전시 더 바운더리 전 : The BOUNDARY

신한화구
2012. 2. 1. 9:59

+ 이웃추가

◆ 미술전시 더 바운더리 전 : The BOUNDARY ◆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어제, 눈이 펄펄~내려서 오늘은 새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더군요^^

눈이 오면, 세상이 새 하얗게 변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로 인해 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더 앞서는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기조심! 운전조심! 차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미술전시는 바로 더 바운더리전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전시

미술전시 더 바운더리 전 : The BOUNDARY



2012년

채수원 採穗園 Scion Garden - 박유진展 :: Painting (2012. 04. 06 ~ 2012. 04. 26)



아트허브
2012. 4. 3. 19:05

『 채수원 採穗園 Scion Garden - 박유진展 』

Park Uzine Solo Exhibition :: Painting

● 야생의 숲과 경작지 사이의 자연

★이선영(미술평론가)

박유진이 일궈놓은 그림 정원의 이름 모를 식물들 사이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식물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식물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뒤엉켜 공간을 식물 향기로 가득 채운다. 브람스를 들으며 그렸다는 식물들은 뻗뻗하게 서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린다. 몸과 함께 마음도 흔들린다. 엉켜있는 가로수를 이루고 있는 작품 [바람 속 정원](2012)에서는 사각형 풀밭을 향해 덩굴들이 구름처럼 내려오는 가운데, 식물과 공간을 휘휘 감아 도는 연한 녹색 띠가 상쾌하게 펼쳐진다. 연한 녹색 띠가 엉켜 꽃을 에워싸는 작품 [풍력 충전](2012)에서, 바람은 식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에너지로 작용한다. 날카로운 줄기와 크고 화려한 꽃망울을 가진 엉켜있는 바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듯하다. 박유진의 작품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여러 식물은 함께 리좀(Rhizome)을 이룬다.

이 작품을 비롯하여, 한정된 공간임을 암시하는 불연속적인 사각 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작품 [붉은 꽃의 야상곡](2011)에서 사각형 형태 안에 또 다른 사각형이 창처럼 걸쳐 있다. 앞과 달리 뒤의 식물은 동양화처럼 표현되어 있다. 여러 개의 사각형이 등장하는 작품 [깊은 산 숲속에](2012)는 다른 시대, 다른 계절의 식물들이 공존한다. 화면 또는 장소의 한정을 통해 다양한 시공간을 병존시킨다. 테두리 안에 식물이 가득하기는 하지만, 숲이나 정글 같은 원초적인 자연은 아니다. 작가는 제주에 가서 천년의 나무가 자라는 숲에서 공포를 느낀 반면, 그곳 호텔의 정원에서는 아름다움을 본다. 어둡고 뻗뻗한 숲이 아닌, 사람의 손길로 다듬어진 반쯤은 인공적인 연출에 대한 취향이 있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투사된 자연에서 길을 만들려 한다. 미학적으로 본다면 숲과 보다는 아름다움에 기울어있다..... [내용 더보기](#)



커뮤니티

[전시소식] 솔루나 파인아트

위클리홍콩 2022-11-25 10:16:35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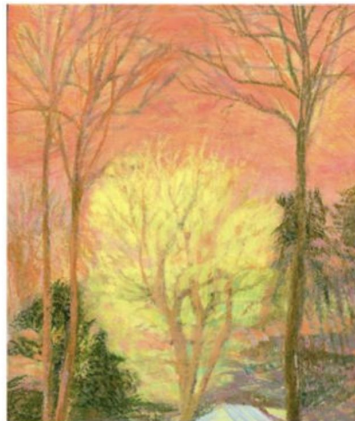
솔루나 파인 아트

작가 :Rosalyn Ng, Tobe Kan, Uzine Park, Zang Zong-Son

기간: 2022년 11월25일 ~ 12월 15일

오프닝: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 오후 8시

장소: Soluna Fine Art, GF, 52 Sai Street, Sheung Wan, Hong Kong



▲(좌)Uzine Park, Sound of Sunset, 2022

(우) Tobe Kan, Awake 17, 2022

성완에 위치한 솔루나 파인아트(SOLUNA FINE ART) 갤러리는 2022년 11월 24일(목) 5시 '중력 Gravity' 그룹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중력 Gravity'은 홍콩과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4명의 작가 Rosalyn Ng, Tobe Kan, 박유진, 장정선이 참여합니다.

'중력 Gravity'은 각각 식물과 정물, 풍경을 대상으로 작가가 경험 하는 물리적 공간과 추상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다양한 서사를 통해 표현된 회화 및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펼쳐가는 4명 작가의 독창적인 색과 형태의 작업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해 가는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 화면을 이끌어 가는 예술가의 직관을 제고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The End

SOLUNA
FINE ART